

죽음은 또다른 삶의 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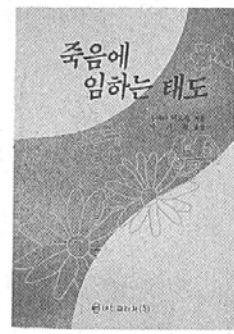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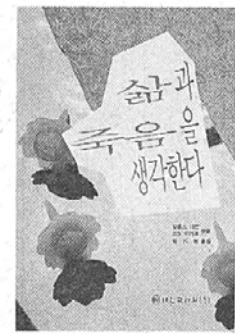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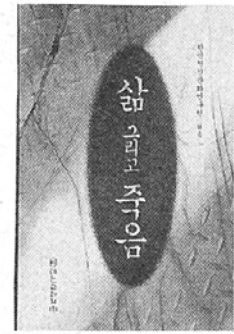
'죽음' 다룬 책 3권 동시 출간

"나이가 칠십이 넘고보니 인생의 무상함이 느껴질 뿐만 아니라 곧 내게 닥칠 죽음에 대해 두려움이 지푸 생각됩니다.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두려움을 떨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스님에게 보낸 신앙상담의 내용이다. 단지 고통의 노인에게만 해당하는 의문이 아니다.

종교는 죽음과 같은 한계상황에서 의미를 부여하여 궁극적인 해석을 하게하는 것이라는 종교사회학자의 종교정의의 불리지 않더라도, 불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에서는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여기지 않는다.

최근 '죽음'을 주제로 한 세



생사관을 다룬 10편의 논문을 실어 삶과 죽음에 대해 본격적인 종교·철학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삶과 죽음을 생각한다》는 '인간을 훌륭하게 성숙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서의 죽음'의 의미를 파악하고 있

나 싶어 감격스럽기까지 하다'는 고백에서 처럼 죽음을 앞둔 절망감과 삶에 대해 차분히 정리하는 마음의 여러 무늬를 담담한 문체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서 평상시에는 느끼지 못하는, '마음이 통하는 사

두려움 대상 탈피 종교·철학적 접근 '관심'

권의 책이 동시에 나왔다. 《삶 그리고 죽음》(삶과 죽음을 생각한다) 《죽음에 임하는 태도》로, 대한교과사에서 '죽음의 미학' 시리즈로 펴냈다. 모두 죽음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삶 그리고 죽음》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철학·종교연구실이 최근 개최한 '삶과 죽음에 대한 철학·종교적 성찰'을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을 엮은 책이다. 이 책에서 목동배교수(동국대 불교학과)는 불교에서 보

러한 현실을 공(空)의 지혜로써 해결하고 있다'고 밝히고 '참다운 나의 발견과 그에 입각한 무지의 소멸을 통해 생사윤회하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런 경지가 바로 열반이며, 따라서 열반의 증득이 수행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삶 그리고 죽음》은 이밖에 도 '불가철학에서 본 삶'을 비롯 '노자에서 본 죽음의 문제', '기독교에서 본 삶', '실존철학에서의 죽음의 문제' 등 유교 기독교사상 및 철학에 나타난

다. 일본 상지대학 카운셀링연구소가 주최한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세미나'에서 행한 강연을 묶은 것으로, 죽음을 직접 지켜본 임상심리학자 정신과 의사 철학자 임상간호사 가족 등 아홉사람의 일문보고서이기도 하다.

《죽음에 임하는 태도》는 일본의 의사이자 작가인 우에다 미요지의 '죽음 수상기'. '운명은 피할 수 없지만, 죽는다는 것은 마음의 정리해놓았다'고도 문득, 아직 살아있구

람이 자상하게 다리를 옮겨주는 등 친절을 베푸는 것은 아픈 덕분에 맛보는 살가운 우정의 확인'이라며 병문안을 통해 나누는 삶의 마지막 기쁨을 전해주고도 한다.

이들 책의 공통점은, 죽음은 삶과 대립되는 것 또는 두려움의 원인이 아니라 삶을 더욱 풍부하게 해주는 선지식이 라는 것이다. 나이가 죽음을 종교와 철학과 삶의 또다른 이름임을 호언케 해준다.

정성운 기자

국제저작권협약 파고가 불서출판계에도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불서출판계에 가장 큰 타격으로 다가오는 것은, 87년 10월1일 이후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협정 체결없이 발행된 도서는 96년 1월부터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이에따라 도서출판 민족사는 번역서인 '개달음총서' 전 45종을 정가의 50%로 할인판매하기로 하는 등 지구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한국출판문화협회 등 출판단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원저작물에 대한 사용료 지불 및 판매 금지 조처를 99년까지 유예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불서출판계 '저작권' 몸살

번역서 '할인' 등 지구책 마련 부심

의존 불교학술서적 타격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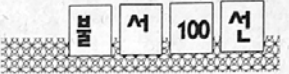
하는 국내저작권법 개정안을 마련중이다. 윤정광 출판문화협회 부회장은 국내저작권협약이 불서출판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일본불교학에 크게 의존하는 불교학술출판이 어려움에 봉착한 것은 사실이나 국내저작권법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았고, 미국 등과 협상을 계속하고 있어 96년부터 번역서 판매 금지는 아직 유동적"이라고 밝혔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 순위 | 도서명 | 저·역자 | 출판사 |
|----|-----------------|------|-------|
| 1 | 지금 이자리에서의 깨달음 | 데시마루 | 장 승 |
| 2 | 선문활용 | 휴 정 | 불서보급사 |
| 3 | 소설등신불 | 석용산 | 문학수첩 |
| 4 | 무엇하러들 오셨는가 | 문연 | 미하사 |
| 5 | 영가천후법어 | 석성우 | 토방 |
| 6 | 달마의 제자들 | 고우영 | 불지사 |
| 7 | 사랑하는 나의 작은 우주아 | 이혜국 | 솔바람 |
| 8 | 금강경 강의 | 문비 | 불광 |
| 9 | 선 100문100답 | 진제 | 과란나라 |
| 10 | 애의빛으로 환산하는 애로가키 | 강자우 | 밀알 |

구입문의: (02)737-0695

명사추천



'지장경'

'어린이에게 죽음에 대해 가르치지 않는 것은 큰 죄악'이라고 한 어느 철학자의 글을 읽은 것은 오래전 일에서였다. 그때 나는 유물사관으로 현실을 읽어내려고 꽤나 열정적이었다. 아니 광적이었던 것은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다. 그 무렵 자우스님을 만났다. 날마다 불을 토하듯하는 내 껍데기에 인육정진을 할 때쯤이던 자우스님이 떠나면서 입을 열었다.

유물사관이든, 맑시즘이든 삶에만 너무 공력을 들인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에 나도 사는데만 너무 몰두하는 것 같으면서 그의 바람에 들어있던 책 두권을 던져주었다. 그중 한권이 <지장경>이었다. 나는 레오버스카클리야교수의 죽음에 관한 아주 얇은 책을 먼저 읽고나서 마지막 지장경을 보았다. 읽어갈수록 인내심이 필요한 경전이었다. 지루하고 따분했다. 뒷쪽의 '지장보살정명록'은

이타행, 오직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을 삶의 궁극 목표로 삼는 지장사상을 느끼게 되면서 나는 자우스님의 말속에 감춰진 뜻을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다.

그때까지 내가 26년간 살아온 것은 '남을 이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해롭게 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어렵게 깨달았다. '이롭게'과 '해롭게'는 글자한자 차이일 뿐이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남을 이



정동주 (소설가)

이타행 실천 삶의 궁극목표 집착서 벗어나는 방법제시

기묘한 전설같지만 재미있었다.

그 당시 우리사회는 '발전'과 '개발' 지상주의여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벗어나 있었고, 제 자리 지키는 것은 위험한 것이었다. 발전은 앞으로, 위로, 옆으로, 때로는 아래로도 파들어가는 적극적인 변화였고, 마침내 변화와 파괴가 혼동되기에 이르렀다. 그 때부터 지장경을 한번 겨우 읽고 던져버려려고 하다가 자우스님 얘기를 떠올려 다시 읽게 되었고, 연달아 세번을 읽어냈다. 사는 데만 급급하다보면 생명을 잃는 것을 죽이는 짓조차도 정당화시키려는 착란에 빠져들기 쉽다는 자우스님 얘기였다.

'죽음이 다 비워지지 않고서는 부처가 되지 않으리라'는 전혀 뜻밖의 글귀가 눈에 겨우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세번째 읽을 때였다. 철저한

롭게까지는 못할지라도 해를 끼치는 짓으로 먹고 살지는 않게 되기를 서원했다. 권력 가까이 가는 길을 포기했다. 그때는 그게 옳은 것 같았다. 그때의 그 결정 이후 20년도 더 지난 지금 생각해봐도 여전히 기쁘다. '지장경'은 죽음을 삶만큼 아니 삶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가르쳤다.

현실적 삶에만 매달리는 것 자체는 자칫 남을 해(괴)롭히는 것이 되기 쉽다는 교훈을 가르쳐 주었다는 말이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파괴와 생명위기는 이기적인 삶에만 광적으로 집착해온 우리를 스스로가 자초한 재앙일 뿐이다.

이제부터라도 아이들에게 죽음의 참뜻을 가르쳐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어른보다 더 오래 살아야하고 그들도 자식을 낳아 길러야 하기 때문이다.

'禪 수행자 인식세계 묘사'

김인수 장편소설 '달마는 꽃속으로...'

'불교신론' '해동불교' '대한불교' 등의 편집국장을 지낸 불교언론인 김인수씨의 장편 (달마는 꽃속으로 날아간다) (현상과 인식 권)가 선(禪) 수행자의 의식의 흐름을 골간으로 '실재'와 '인식'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 선소설의 새로운 테마격이라 할 수 있다. 선수행자의 구도여정이 아닌

바로 정신세계의 문제를 이들과의 입적과정을 통해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비구니 자호스님의 인식은 현대과학의 실증적 세계관과 선수행의 돈오적 직관의 치열한 대립 양상에서 실오라기를 풀어가듯 자성(自性)의 묘체를 더듬어 가고 있다. 이는 혼돈의 시대를 지켜가는 수행자의 내적 방황과 외부

'하산' 작가 홍주스님

1967년 당시 불교계의 현실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구도자의 바른길을 제시한 문제작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소설 '하산'의 저자 홍주스님의 사망과 관련한 월북기도설에 대한 새로운 주장이 제기돼 화제가 되고 있다.

홍주스님은 임진강을 건너 월북하려다 국군초병의 총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홍주스님의 유족들에 따르면, "시체수습시 총격에 따른 외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며 월북기도설을 강력히 부인하고 나섰다.



세계와의 치열한 싸움이기도 하다. 결국 작가 김인수씨는 이 소설을 통해 주인공과 비슷한 고뇌를 가진 사람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스스로의 인식구조 속에서 찾아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출판가 화제

한편 <하산>을 재출간한 불지사(277-2676)는 홍주스님 유족들의 요청에 따라 '홍주스님이 월북을 기도했다'는 결론을 유보하기로 하고 당시 홍주스님과 인연이 있었던 도반스님들과 불자들의 제보를 바란다고 밝혔다.

새로나온 책.....

◇김인수씨

▲지장보살본원경 강의(한정섭 지음)=지옥중생들을 다 구제하기 전에는 성불하지 않겠다며 6도중생의 고난소멸의 서원을 담은 지장보살본원경 강의록. 지은이가 조계사 신도회 등에서 행한 강의 내용을 도출한공신본품을 비롯 '지장신앙의 발원' '지장경의 종류와 유통' '경의 제목해설' 등 19개 강의로 엮었다. <불교대학교재편취위, 6천원>

▲불교의 효(이동형 편지)=

효행의 실천과 그 부덕을 설한 경전을 한데 묶었다. 수록 경전은 지장보살본원경 부모은중경 우란분경 불설속명경 불설진화경 등. <수문출판사, 8천8백원>

▲불교입문(석서진 지음)=

부처님 마음의 본원을 실한 불설무량수경에 입각한 불교 입문서.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 '수행' 등 7장으로 구성했다. <반야회, 5천원>

▲그대인의 보물을 두고 왜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행림출판, 6천5백원>

▲운회의 진실(지나 세미나 지음)=<운회의 비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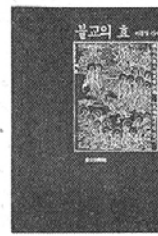
우리나라에도 널리 알려진 미국의 심리학자 지나 세미나의 운회이야기. 철학, 투지와 초

▲그대인의 보물을 두고 왜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행림출판, 6천5백원>

▲운회의 진실(지나 세미나 지음)=<운회의 비밀>로

우리나라에도 널리 알려진 미국의 심리학자 지나 세미나의 운회이야기. 철학, 투지와 초



▲그대인의 보물을 두고 왜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행림출판, 6천5백원>

▲운회의 진실(지나 세미나 지음)=<운회의 비밀>로

우리나라에도 널리 알려진 미국의 심리학자 지나 세미나의 운회이야기. 철학, 투지와 초

책방 여시아문

길 찾는 이의 도반, 책방 여시아문

독자와 함께 하는 독서회원제

책방 여시아문의 회원이 되시면 언제든지 필요한 서적을 편리하게 구입하실 수 있으며 본 책방에서 발행하는 신간 안내 소식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책방 여시아문은 고객의 입장에서 책에 관한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사와 책방 여시아문이 주관하는 다양한 행사에도 회원 여러분을 최우선으로 모십니다. 회원가입은 책방에 비치된 신청서 및 전화, 팩스로 신청해 주십시오. 가입비는 무료입니다.

매월 발행하는 독자들의 귀와 눈 "책방 여시아문 소식지"

매월 15일 발행하는 여시아문 소식지는 불교 서적에 관한 최신 정보를 가득 담고 있습니다.

- 새로 나온 책 - 각종 불교서적 및 불교 관련 신간을 빠짐 없이 수록하였습니다.
- 독자가 뽑은 나의 불서 - 애독자와 함께 추천하는 불서
- 불교 출판 편집자가 뽑은 명저 - 불교서적 출판에 온갖 정성을 다하는 불교서적 전문 출판 편집자가 추천하는 불서
- 책방 여시아문이 뽑은 이달의 책 - 본 책방에서 양서라고 검증된 불서만 가려 뽑아 실었습니다.
- 불교 출판사를 찾아서 - 불교 출판 문화 발전에 항상 노력하고 있는 불교 출판사 탐방
- 베스트셀러 20선 - 책방 여시아문 월간 판매 집계 20선.
- 책방 여시아문 지체해 보기 - 독자 여러분께 보람이 되고자 본 책방 소장 영인본, 희귀본, 절판본을 계속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항상 독자를 찾아가는 통신 판매

지방에 계신 독자나 산사의 스님, 책방에 나오시기 어려운 분을 위해 통신 판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 주문은 전화, 팩스,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송료는 책방 여시아문에서 부담합니다.

찾아오시려면

경북도 영주시 중로 현대불교신문사 평화당 2층에 위치
 종로구 공평빌딩 2층에 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33에 위치

책방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737-0695 / 팩스 : 737-0696

책방 여시아문의 회원이 되시면 언제든지 필요한 서적을 편리하게 구입하실 수 있으며 본 책방에서 발행하는 신간 안내 소식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매월 발행하는 독자들의 귀와 눈 "책방 여시아문 소식지"